

진중오 올림픽 3연패 신화를 쓰다



▶관련기사 3·18·19·20면

50m 권총서 대회新 금메달
 세계 사격 역사상 첫 대기록

남자축구 멕시코 꺾고 '8강'
 여자배구 아르헨 3-0 격파

드라마틱한 대역전이 잇따랐다. 박상영이 전날 극적인 역전 드라마로 남자 펜싱 에페 개인전 금메달을 거머쥔 데 이어 '총잡이' 진중오(37·KT)도 11일(한국시간) 새벽, 대역전 드라마를 이룩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진중오는 세계 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의 대기록도 썼다. 주춤했던 한국의 '10-10'(금메달 10개·총합 톱 10) 레이스도 사격에서 금메달 사냥에 성공,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진중오는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사격센터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50m 권총 결선에서 대회신기록(193.7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사격 사상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최초로 같은 종목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는 금자탑을 세웠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광도 안았다.

진중오는 9번째 격발에 6.6점을 쏘아 7위로 추락, 탈락 위기에 놓였다가 세계 사격사에 길이 남을 역전극을 펼치며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남자 축구도 '디펜딩 챔피언' 멕시코를 1대 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하며 분위기가 반전에 힘을 실었고 여자배구도 아르헨티나를 제압하며 8강 확보를 위한 9부 능선을



한국의 진중오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데오도로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50m 권총 결선에서 1위를 기록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뒤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받은 뒤 한국 응원단을 향해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넘었다. 브라질, 카메룬과의 경기 중 한 경기만 이겨도 A조 6개 팀 중 4팀에게 돌아가는 8강 티켓을 손에 넣는다.

이외 광동환(하이원)이 첫 출전한 올림픽 유도 남자부 남자 90kg급에서 동메달을 수확했고 런던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인 금메달리스트인 김정환(33·국민체육진흥공단)도 사브르 개인전 동메달을 추가했다.

기보배·최미선·장혜진 등 양궁 여공사들은 12일 새벽부터 양궁 개인전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구본찬·이승운도 13일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김현우도 15일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한편, 한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순위 7위에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힘내라 코리아! Rio 2016

12일(금) <한국시간>
 19:30 남자골프 안병훈·왕정훈 출전
 21:35 베드민턴 남자복식 이용대 출전
 13일(토)
 07:00 역도 남자 85kg급 유동주 출전
 09:20 육상 남자 멀리뛰기 김덕현 출전
 10:35 여자배구 대한민국 vs 브라질
 21:30 남자 육상 100m 김국영 출전

■ 광주·전남 날씨

12(금)	13(토)	14(일)	15(월)
26 / 36	25 / 36	26 / 34	25 / 33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15일 08:00 화순에서 출발

15일 광복절 신문 쉽니다

폭염에 갇힌 한반도...광주 오늘 가장 덥다

불볕더위 다음주까지 계속

11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폭염특보제가 우리나라 내륙 전역에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9.5도까지 치솟은 경북 경산시(하양읍)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광주 36.7도, 서울 36.4도, 부산 34.8도, 대구 37.8도, 대전 35.6도, 제주 33.1도 등 전국이 폭염에 갇혀버렸다. 당분간 무더위를 누그러뜨릴 큰비 소식도 없어 폭염은 다음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지역에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

도 이상인 날이,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를 이상 각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광복절까지 대기 불안정에 따른 일시적인 소나기 외에 비 소식이 없어 울어들어 최고로 무더운 날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개각에 호남 인사 중용 '이정현 효과' 나타날까

박대통령에 탕평인사 건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 잘하겠다"고 답해,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이 중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회에서 "개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 다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개각을 포함한 이 대표의 여러 건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감사하다"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참고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부정부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의 경우 규제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7~9월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당정, 가구당 20%정도 경감

7월분 할인 9월에 소급 적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7~9월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7~9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 체계 6단계 모든 구간을 50kwh씩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6단계로 구분되는 누진체계에서 '1단계는 1~100kwh, 2단계는 101~200kwh, 6단계 500kwh 이상' 순으로 구간에 따라 적용요금이 올라간다. 이를 1단계가 1~150kwh, 2단계가 151~250kwh 이 되는 식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미 청구된 7월분 전기요금도 할인혜택을 소급 적용해 9월 고지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은 누진제 요금 체계가 조정되면 서 전기요금은 가구당 20%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누진제 완화에는 모두 4200억원 재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당정은 밝혔다.

당정은 전기료의 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선 당과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다"며 "단계에서 4단계로 전환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산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